실상사, '휴휴당 주련'으로 문자반야 세계

한글 주련 '그대가 나임을' 6폭 제작

전통 · 현대 결합한 문자미학 제시

문자반야 프로젝트 성과 집약된 불사

2028년 개산 1200주년…공간혁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남원 실상사(주지 운묵 스님)가 휴휴당 주련 봉안을 계기로 그간 이어온 '문자반야 프로젝트'의 성과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불사를 넘어 현대사회에 걸맞은 불교적 문자미학을 구축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상사는 4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휴휴당 주련을 공개하고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문자반야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주련은 실상사가 수년간 축적해 온 문자 실험의 집약체로 평가된다. 실상사는 그간 문자 자체를 수행과 깨달음의 매개로 삼아 사찰 현판과 주련, 안내문 등을 새롭게 구성해 왔다. 핵심은 전통을 답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의 감각과 언어로 불교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데 있다. 그동안 사찰 현판과 주련은 한문이 주를 이뤘고 이는 대중과의 거리감을 낳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상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글과 한자,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새로운 문자 형식을 모색하면서 선재집 현판, 휴휴당 편액 등을 선보여 왔다. 휴휴당 주련은 그 연장선에 있다.

형식은 매우 파격적이다. 기존 사찰 주련이 대부분 한자로 쓰인 것과 달리 전면 한글로 구성됐다.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언어'로서 기능하면서도 서체는 한자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재구성돼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실상사 휴휴당 주련. 오른쪽부터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임을, 미안해 미안해, 이제 알았네, 그대가 나임을, 고마워 고마워'라는 도법 스님의 시구다. 한자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로 재구성, 전통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4월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국 문자반야프로젝트 추진위원, 실상사 주지 운묵 스님, 날개 안상수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왼쪽부터).

서예는 김종원 작가가 맡아 한자의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을 재구성했다. 김종원 작가는 "훈민정음의 '자방고전' 원리를 오늘날 기계시대 미학에 맞게 재해석해 낸 것"이라며 "한글이 지닌 조형 가능성을 확장해 문자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각자는 김각한 각자장(국가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이 맡았다. 필획(筆劃) 의도를 극대화해내기 위해 음양각(陰陽刻) 기법을 구사, 한글전서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극적으로 필획된 행초서의 '비백(飛白)'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살려낸 것이 특징이다.

6폭으로 구성된 주련의 글귀는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이 지은 시 '그대가 나임을'을 바탕으로 한다. 시는 타자와 자아의 분별을 넘어서는 불교적 연기사상을 드러낸다.

주련이 걸리는 '휴휴당'은 실상사의 템플스테이 공간이다. 2013년 건립 이후 편액과 주련 없이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편액에 이어 주련 불사를 통해 비로소 공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갖추게 됐다.

이동국 추진위원은 "주련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정신을 규정하는 요소"라며 "휴휴당 주련은 이곳이 '쉼'의 공간을 넘어 관계와 생명을 성찰하는 공간임을 드러낸다. 휴휴당을 찾는 이들이 머무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 의미를 체득하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자와 건축, 수행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는 문자반야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바로 문자 자체를 넘어 깨달음을 일깨우는 도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주지 운묵 스님은 "이번 주련 불사는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이며 연기 가르침을 문화적 차원에서 구현하는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이는 회주 도법 스님의 전통을 지키되 갇히지 않고 새로움을 받아들이되 본질을 잃지 않으려는 열린 사유와 실천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상사는 늘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자반야프로젝트는 전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 흥선 스님, 날개 안상수 타이포그래피 아티스트, 이동국 전 경기도박물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불교는 지금

인도네시아 청년불자 '마음챙김'으로 치유

4월 10일 자카르타서 청년 행사

범종교 '그랜드 마인드풀 커넥트'



참가자들이 발성을 위한 호흡을 배우고 있다. 사진 출처=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려 화제다. 4월 10일, 국제불교 전문매체는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범종교 청년 정신 건강 워크숍 '그랜드 마인드풀 커넥트'에 대해서 특별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청년불자협회(YBAI)에서 주관하는 '그랜드 마인드풀 커넥트'는 인도네시아 불교 공동체와 현지 청년 불자단체들이 협력해 마련한 것이다.

5회차를 맞은 워크숍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커지는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현대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불교명상법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이 행사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인도네시아 내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발성 연습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배우는 과정을 넘어, 목소리를 내는 순간의 호흡과 진동에 집중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법을 익히는 불교적 알아차림의 연장선으로 기획됐다.

행사를 이끈 체실리아 판게스투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을 변형하거나 현대화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명상법을 소개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YBAI 측은 발성을 마음챙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소리, 리듬, 의미를 이용하여 집중력과 마음챙김을 기르는 전통적인 염불수행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동안 참가자들은 호흡, 소리, 그리고 정신상태 사이의 관계를 관찰하도록 안내받았다. 워크숍을 진행한 불교크리에이터 엘만드는 "기도문을 외우거나 노래를 부를 때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목소리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 더욱 세련되고 차분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처음에는 명상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성을 위한 호흡을 배우면서 호흡법이 정말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현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서 "일상의 활동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최측은 워크숍이 종교 간 화합적 성격이 불교 공동체를 넘어 명상 수행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YBAI는 이러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지역 사회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D-31' 동국대는 연등 제작 중

불기 2570(2026)년 연등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국대가 커다란 연등공방으로 변했다. 교내 곳곳에 마련된 연등공방에서 19개 불교동아리 회원과 전법특임교수, 지도교수들은 연등회 연등행렬에 참여할 장엄등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사진은 다향관에 마련된 연등공방에서 사회과학대학 템플애플 동아리 회원들이 백설공주 아기코끼리등을 만들고 있다.

글 · 사진=신중일 기자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우수상 박진영 씨

장려상에 이복희 씨 수상

4월 24일 시상 및 발표회



신진 불교학 연구자 발굴을 위한 제2회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우수상에 박진영 씨(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과정·사진)가 장려상에 이복희 씨(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박사 수료)가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는 선정되지 않았다.

논문 '백파는 외롭지 않았다-조선 후기 삼종선(三種禪)의 지지자들'로 우수상을 수상한 박진영 씨는 동국대 불교학부와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현재 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제6기 대원청년불자상과 제8회 성운학술상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복희 씨는 논문 '선(禪)의 질문 정신-〈직지심체요절〉을 중심으로'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부산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 선학과를 진학해 석·박사까지 마친 이복희 씨는 옥스퍼드 불교학센터에서 빨리어를 리처드 곰브리치 교수에게 배운 재원이다.

한국불교학회 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4월 24일 오후 2시 동국대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논문 발표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일본인도 반한 'K-관음성지'

문화사업단 4월 15일 회향식

2차 73명 관음기도로 마무리

스도 씨 "인연의 소중함 느껴"



문화사업국장 일학 스님이 10년간 33관음성지를 순례한 일본인 스도 아키코 씨에게 회향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10년에 걸쳐 한국의 관음성지 33곳을 모두 순례한 일본인 순례자가 탄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4월 15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2026년 제2차 33관음성지 순례 회향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차에서는 총 73명이 회향해 37명이 회향식에 참석했다.

'33관음성지 순례'는 문화사업단이 발간하는 전통사찰 순례 책자 〈한국 33관음성지〉에 수록된 사찰 33곳을 방문해, 각 사찰의 인장을 모두 모으면 회향증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향식에서는 한국의 관음성지 33곳을 순례한 스도 아키코(須藤明子) 씨가 순례자 대표로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스도 씨는 10년 동안 31개 사찰을 혼자, 2개 사찰은 친구와 함께 찾았다. 택시나 차량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모든 사찰을 순례했다.

그는 "보리암을 참배할 때는 교통편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따뜻한 친절을 받을 때마다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2024년 4월 순례했던 고운사가 이듬해 산불로 전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이번 33관음성지 순례를 마치며 긴 여정 속에서 많은 인연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산중 사찰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국 불교문화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달력 공모전 금상에 장명확의 '인도'

은상에 혜득 스님 선정



제6회 불교 달력 사진 · 미술 작품 공모전 금상 수상작 장명확 씨의 '인도-쿠시나가르'.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사장 성진 스님)가 주관한 '제6회 불교 달력 사진·미술 작품 공모전'에서 장명확 씨의 '인도'가 금상으로 선정됐다.

㈜도반HC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장명확 씨의 사진 '인도'를 금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고 4월 13일 밝혔다.

은상에는 혜득 스님의 그림 '내 마음속에 부처님 세상'과 최강일 씨의 사진 '풍경소리'가 이름을 올렸다. 동상은 진용 스님의 일러스트 '선명상', 박종권 씨의 사진 '연꽃'이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상운 씨의 '천안각원사'를 포함한 7명이 입선작으로 뽑혔다.

금상 수상자 장명확 씨는 "석가모니의 탄생지에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설법했던 곳, 그리고 열반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싶었다"고 출품 취지를 밝혔다.

은상 수상자인 혜득 스님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계절의 느낌을 바탕으로 자연과 동물, 불교 행사 일정을 함께 녹여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동상 수상자 진용 스님은 "'진이랑 용이랑' 동자승이 기도와 참선, 공양 등 일상 속에서 마음을 보고 공부하는 선명상의 내용을 그림에 담았다"면서 "간결한 선과 산뜻한 색감으로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전하고, 보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바랐다"고 전했다.

공모전을 주관한 ㈜도반HC 사장 성진 스님은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훌륭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총평하며 "2027년 불교 달력 역시 다양하게 구성해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중신회 '파크골프대회 시범 라운딩'

4월 11일 밀양파크골프장서

"지역사회와 좋은 결실 맺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가 4월 11일 밀양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계종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앞두고 시범라운딩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딩 행사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 점검과 함께 밀양시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정원주 중신회장, 중앙신도회 임원과 안병구 밀양시장 등 밀양시 관계자까지 약 4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총 10개 팀으로 나뉘어 36홀 라운딩을 진행했다.

라운딩에 앞서 진우 스님은 "앞으로 열릴 본행사에서도 불교계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주 회장은 "불교계와 지역사회의 교류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신도회는 오는 10월 말, 밀양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계종 총무원장배 전국불자 자선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